

# 중앙도서관 · 정보문화관 1개층씩 증축

## 중앙도서관은 지난 7일 기공, 정보문화관 증축은 내년 6월 예정

중앙도서관과 정보문화관이 1개층씩 증축된다. 사업개발본부에 따르면 중앙도서관의 경우 875석 규모의 열람 전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증축공사가 지난 7일 부터 시작됐으며 내년 6월 완공 예정이다. 정보문화관은 중앙도서관이 완공되는 내년 6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증축공사가 학기 중에 진행되면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들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앙도서관 측은 "환경영향평가가 최근에야 통과됐고 겨울에는 시멘트가 얼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기 중에 공사가 실시된다"며 "특히 30일까지 옥상 바닥을 뜯어내는 공사를 진행해 소음이나 진동이 심할 것

로 보인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다음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되는 기말고사 동안에는 공사가 중단되며 공사 기간 중에는 장충문화체육센터 독서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1월엔 엘리베이터 공사로 엘리베이터 사용도 중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앙도서관의 한 개 층이 증설되어 열람실 공간이 늘어나게 되면 학생들이 시험 기간 때 마다 좌석 부족으로 캠퍼스를 헤매야 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증축 공사와 더불어 건물 옥상을 녹지로 조성하는 옥상녹화사업도 이뤄져 중앙도서관 옥상이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변모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앙도서관에 이어 정보문화관도 내년 6월 증축 공사를 실시한다.

사업개발본부는 "정보문화관은 강의실 이용률이 70%를 넘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며 "이로 인해 구성원들의 불만이 높았다"며 증축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정보산업대 교수들은 연구실을 학술관에 배정 받아 수업을 하기 위해선 학술관에서 정보문화관까지, 캠퍼스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이동해야 했으며 강의실과 학생 자치 공간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정보문화관이 증축되고 내년 공간 부족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어 공간 이용 만족도가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4면  
이영호 기자  
blueealge@dongguk.edu

### 옥상녹화사업 완공식 내일(11일) 예정

△동국관 △만해관 △학림관 △학생회관 △혜화관 △학술문화관 총 6개의 건물에서 진행되었던 옥상녹화사업이 약 3개월 간의 공사를 마치고 완공됐다. 옥상녹화사업의 완공식은 오는 11일 3시에 만해관 옥상에서 열린다. 이번 옥상녹화사업은 부족한 녹지를 확보하여 학생들이 옥상에서도 녹색캠퍼스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옥상녹화 사업의 완공은 의의가 있다.



이 공약 관행은? 중앙기구 및 단과대 학생회 후보자 추천이 지난 6월과 7월에 있었다. 사진은 한 학생이 후보자의 공약을 보고 추천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 불교TV, 1억 3천만원 상당 방송장비 기증

### 기증장비로 본관1층에 교육방송국 스튜디오 구축



불교TV가 지난 7일 본관에서 우리대학에 방송장비 일체를 기증하는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기증식에 불교TV 구본일 사장과 오영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구본일 사장은 "이번 장비기증은 산학협력의 연장선에서 우수한 방송인력 양성을 위해 힘써 달라"며 이번 기부 목적을 밝

혔다. 이에 오영교 총장은 "귀중한 장비를 지원받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불교 TV가 기증한 방송장비는 방송용 스튜디오 카메라 3대와 편집기, 스위처, 오디오 콘솔, 자막기 등 스튜디오 녹화장비 일체로 약 1억 3천만원 상당의 규모이다.

한편, 같은 날 DUBS 스튜디오 완공식이 본관 1층 DUBS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스튜디오는 연면적 164㎡ 규모로 지어졌으며 2개의 스튜디오와 조정실, 총 8대의 방송 편집기와 각종 방송기자재를 갖추

## 12개 기업, 경찰행정학과에 장학금 기탁

### 3천만원 모금해 전달 ... 30명 장학혜택 받아

주식회사 에스원 등 12개 기업 대표들이 경찰행정학과 장학금으로 3천만원을 기부했다. 경찰행정학과는 지난달 30일 사회과학관 3층 행정대학원 첨단강의실에서 기업장학후원행사를 갖고 이들 기업에 장학회로부터 장학

금 3천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장학 후원으로 모두 30명의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경찰행정학과가 외부기업체로 후원받은 장학금은 모두 5억 7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법과대학 내년부터 법무대학원 운영

### 미국법무 · 문화예술 법률실무 3개 전공

법과대학은 법무대학원을 신설해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석사과정을 운영한다. 개설된 전공은 △미국법무전공 △문화예술법무전공 △법률실무전공 등 3가지다. 미국법무전공은 국제협약의 근간이 미국법임을 감안해 국제표준법 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거래전문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됐다. 이 과정에서는 미국법을 개괄적으로 학습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미국 로스쿨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소정의 과정(LLM)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미국로스쿨 출신 교수와 미국법 전문 교수들이 강의를 진행해 미국변호

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문화예술 법무전공은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문화재, 영상,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문제를 연구, 문화예술시장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됐다. 법률실무 전공은 국내 법률가들의 법률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이 과정은 소송업무 시장과 국제거래 시장에서의 법률분쟁 해결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운영된다.

## '새로운 디지털 사회를 개척하다'

### 국내 최초 사이버 포렌식 · 디지털 컨버전스 전공 신설

21세기 최첨단 디지털 정보 사회에 발맞춰 언론정보대학원과 국제정보대학원은 내년 1학기부터 국내 최초로 디지털 컨버전스, 사이버 포렌식 전공 석사과정을 신설한다.

이번에 국제정보대학원에 신설될 사이버 포렌식(Cyber Forensic) 전공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관해 사이버 범죄를 조사하고 교정하는 과학적 수사기법,

법정 대응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신설됐다.

또한 언론정보대학원이 신설한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 전공은 미디어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인해 가속화 되고 있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발맞춰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08 COME TOGETHER 13일 개최

### 모교 발전 위해 각계 각층 동문 결집 예정

'2008 COME TOGETHER' 만찬 행사가 오는 13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열린다. COME TOGETHER 행사는 모교 발전을 위해 뜻을 모은 각계각층의 동문들을 초청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박준형 신라교역 회장, 구자선 택우주택 회장,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 등 고액기부

한 동문들을 비롯해 약 50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해 11월에 열린 'Come Together with 108 Project'는 우리대학의 중점 과제인 108프로젝트를 홍보하고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해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부를 이끌어 낸 자리가 됐다.

## 중앙선거 및 각 단과대 선거일정

2009학년도 중앙기구(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총여학생회, 졸업준비위원회) 정 · 부회장선거와 각 단과대 정 · 부학생회장, 대의원장 선거가 25일에 실시된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정공고	후보등록마감	후보자공고	투표일정
중앙기구	5일	11일	12일	25~27일
불교대	5일	10일	11일	
문과대	5일	13일	14일	
이과대	미정	미정	미정	
법과대	미정	미정	미정	
사과대	5일	10일	11일	
경영대	5일	11일	12일	
생과대	7일	13일	14일	
공과대	6일	11일	12일	
정신대	미정	미정	미정	
사범대	미정	미정	미정	
예술대	미정	미정	미정	

## 내년 1학기 전과 신청 18일부터 20일까지 접수

교무팀이 2009학년도 1학기 전과 신청을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전입희망학과가 소속된 대학 학사운영실에서 접수받는다. 전과신청을 위해서는 전과 신청원, 학업이수계획서, 성적증명서 1부가 필요하다. 전과 전형(구술, 실기, 기따)은 다음달 19일 각 학과별로 시행한다.

합격자발표는 내년 1월 21일 uDRIMS를 통해 개별조회할 수 있다. 한편, 전과는 2학기~5학기 재학생만이 신청가능하다.

## 수시 2-1차 합격 1,547명 2-2차 18일부터 원서접수

수시 2-1차 합격자 발표결과, 20,158명의 지원자 중 1,547명이 합격했다.

지난 달 18일과 25일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논술, 면접고사를 거쳐 지난 4일 우리대학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했다. 수시 2-2차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한편, 이번 2-1차에는 민선예, 임윤아, JOO(정민주) 등 유명 연예인 3명이 연극학부 연기재능우수자 전형에 합격해 화제가 됐다.

지/면/안/내

2 총장과의 대화

3 학생자치 이대로 좋은가?

4 건물 신 · 증축으로 변화하는 캠퍼스

5 근대 한국불교의 자화상

8 동문기부문화

내부사정으로 인해 다음주 신문은 휴간합니다. 148호는 11월 24일 자로 발행되오니 독자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기간 : 2008. 10. 1 ~ 10. 31

### 100만등달기 기금

강민구(불교신도, 3만원) 강춘애(서울/교수, 10만원) 김범중(서울/직원, 1만원) 김병호(서울/직원, 3만원) 김영환(불교신도, 10만원) 박기홍(경주/교수, 5만원) 박경임(경주/교수, 10만원) 백성현(스님, 2만원) 변영하(학부생, 3만원) 성낙진(경주/교수, 5만원) 이규춘(경주/교수, 5만원) 이동욱(경주/교수, 2만원) 이상철(불교신도, 1만원) 황순일(서울/교수, 5만원)

(등문, 2만원) 유석천(서울/교수, 10만원) 이관제(서울/교수, 5만원) 이근성(불교신도, 5000원) 이금자(일반/기타, 3만원) 이석현(일산/직원, 10만원) 이원덕(서울/교수, 5만원) 이현정(불교신도, 5만원) 전병건(서울/직원, 5만원) 정수관(서울/교수, 5만원) 조성혜(서울/교수, 5만원) 주성재(서울/직원, 3만원) 채재성(서울/교수, 10만원) 최창렬(서울/교수, 5만원) 허천택(등문, 10만원) 황인규(서울/교수, 5만원)

### 단위기금

(주)캐노아(기업/재단, 10만원) 강경훈(서울/교수, 24만원) 강운호(경주/교수, 10만원) 강선범(대학원/경영, 136만 5500원) 고창택(경주/교수, 20만원) 권동희(서울/교수, 10만원) 권익현(서울/교수, 21만원) 권태윤(등문, 100만원) 김갑순(서울/교수, 21만원) 김강균(등문, 100만원) 김경재(서울/교수, 24만원) 김나리(등문, 100만원) 김나연(등문, 68만3000원) 김낙현(등문, 136만5000원) 김대룡(서울/교수, 21만원) 김동철(서울/교수, 24만원) 김명숙(등문, 1만원) 김문영(등문, 1만원)

> 2면에 계속

### 기금 참여 방법

- 무통장 입금 (예금주: 동국대학교)
  - 신한은행 140-000-64918
  - SC제일은행 107-10-119210
  - 농협 360-17-003822
- 인터넷 약정
  - 발간기금 홈페이지(love.dongguk.edu) 접속 후 작성
  - \* 발간기금 참여 및 문의: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실 (02-2260-3300, 3793~5)

### 세제 혜택

동국대학교에 기부하신 발전기금들은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아래와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절차

- 1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기부
- 2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 3 개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법인: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손비처리

#### 세제 혜택 내용

- 1 개인 기부 : 동국대학교에 기부하신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의 100%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34조 2항, 소득세법 52조 6항)
- 2 법인 기부(주식회사, 법인 단체) : 동국대학교에 기부하신 기부금은 연간 소득금액의 75%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24조 2항)단, 2009년도부터는 연간소득금액의 50% (단위:원)
- 3 기부로 인한 연간 소득별 절세 효과(2005년도 기준)

기부금	연간 소득 금액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절세효과 추정치
1백만원	170,000	170,000	280,000	350,000
2백만원	340,000	340,000	520,000	655,000
3백만원	510,000	510,000	780,000	945,000
4백만원	634,250	680,000	1,040,000	915,000
5백만원	753,250	850,000	1,300,000	1,435,000
6백만원	856,500	1,020,000	1,560,000	1,685,000
7백만원	912,500	1,190,000	1,820,000	1,955,000
8백만원	968,500	1,360,000	2,080,000	2,215,000
9백만원	1,024,500	1,530,000	2,340,000	2,475,000
1천만원	1,070,500	1,700,000	2,600,000	2,735,000

\* 위 표는 1인 가족 기준이며,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46회 동대학술상 작품 모집

모집분야 및 분량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시상 각 분야별 장원 1명 100만원, 가작 1명 50만원

### 제23회 동대문학상 작품 모집

모집분야 및 분량 시: 3편 내외 소설: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시상 각 분야별 장원 1명 100만원, 가작 1명 50만원 (시: 장원 1명 50만원, 가작 1명 30만원)

### 공통사항

- 응모자격: 우리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경주캠퍼스 포함, 대학원생 제외)
- 모집기간: 2008년 10월 20일까지 ~ 11월 14일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단일 도착까지만 인정)
  - 반드시 학교 공식홈페이지나 본사 홈페이지에서 검토자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작품과 함께 제출
  - 여러 작품을 제출할 경우 검토자는 한 장만 작성
  - 작품에 이름 등 신상정보 기재 금지
  - 작품은 원고지가 아닌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련문서 양식으로 작성
  - 총 3부씩 제출
- 보낼곳 (우)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동대학술상·문학상 담당자
- 문의처 전화 (02)2260-3495 전자우편 dgupress@dongguk.edu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독자지원
- 심사결과발표 2008년 12월 1일자 동대신문 지상에 예정
- 기타
  -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모작품은 미발표되거나 현상유치된 바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당선자에게는 개별통보합니다.
  - 당선자에 대한 저작권은 발표일로부터 5년간 본사가 보유하고 그 이후는 작가에게 귀속됩니다.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본사의 규정과 결정에 따릅니다.



역대 총학생회장이 말하는 '학생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 '학생 무관심' 보다 '학생에 대한 무관심' 이 문제

## 교수·직원도 학생회 선거무산 책임 느껴야 ... 학생회도 학교위상 높이려는 '공동노력' 필요

학생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학생회 선거가 올해 역시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학생회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학생회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정우식(철학 02졸) 91년 총학생회장, 유영빈(경영 06졸) 03년 총학생회장과 지난 7일 본사회의실에서 좌담회를 진행해 학생회 위기의 원인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편집자

**참석자 :** 정우식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철학03졸·91년도 제24대 총학생회장)  
유영빈  
(한국청년단체 협의회 사무처장·경영06졸·03년도 제35대 총학생회장)  
**사회 :** 정동훈 (동대신문사 편집장)  
**일시 :** 2008년 11월 7일 오전 10시  
**장소 :** 동국미디어센터

▲사회 = 학생자치기구가 위기라고들 한다. 우리대학의 경우, 2008년도 총학생회를 건설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학생들이 개인주의, 취업몰두, 탈정치적 성향 등을 보이면서 대학사회 속에서 학생들의 역할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90년대와 2000년대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선배들과 현재 학생회의 위기를 토론해보고 학생회가 모색해야 할 방향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 1990~2000년대 학생회의 회고

먼저 각각 학생회 활동을 했던 시기의 학생회 모습과 당시의 학생회 위상에 대해 듣고 싶다.

▲정우식(이하 정) = 당시 학생회는 민주화와 통일의 바람이 거센 시기에 출범했다. 나라의 민주화나 통일에 대한 열망들로 학생자치에 대한 의식들이 높았던 때였다. 명지대 강경대 열사 구타치사 사건과 함께 대외적인 시대상황 때문인지 학생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때이기도 했다. 학생회 내의 학회활동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다. 학우들도 취업 문제에 대해 시달리지 않았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당시 학생회는 건설적인 비판과 신뢰 속에서 학우들의 실질적인 자치조직이자 학우대중의 의사와 이해를 대변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유영빈(이하 유) = 2003년에는 90년대를 지나면서 학생운동도 어려워졌고 학생회가 침체기를 맞게 됐다. 그러다보니, 이전에 비해 학생들의 참여의 폭도 줄었고 요구에 맞게 다양한 가치를 담을 수 없던 체계와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학생회 체계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학생회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였다. 대통령 탄핵 반대시위 같은 사회적인 사안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은 있

었지만, 그런 가치들을 학생사회 안에서 표현하기 위한 형식들이 제대로 고민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쉬웠다. 전체적으로 학생회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해나가는 시기였다

▲사회 = 2008학년도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해 학생자치에 대한 학내의 우려가 높다. 이러한 학생회 선거 무산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 = 올해 102주년을 맞은 명문 사학 동국대에서 학생자치조직의 상징인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한 것은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는 그동안의 학생회 활동이 학내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학생대표기구로서의 신뢰를 상실한 것이 원인이지 않나 싶다. 교수사회나 직원사회에서도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학내구성원 모두가 학교의 주인인 만큼 08년도 학생회 선거 무산은 실제로 학내 구성원 모두의 동반 추락이라 말할 수 있다.

▲유 = 어찌보면 학생들이 뽑을만한 인물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한다. 또한 지금이 '현 시대에 걸맞은 학생회라면 어떠한 형태를 띠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선관위에 의해 학생회 후보 자격이 박탈된 것은 우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학생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일부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이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학생자치 위원회는 '무관심'

▲사회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생자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학생들의 무관심이라는 지적이 많다.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다.



▲ 유영빈(경영 06졸) 제35대 총학생회장



▲ 정우식(철학 03졸) 제24대 총학생회장

“공감대 형성의 주체가 되어 학생들과 함께 하는 학생회의 시발점 돼야”

“학교는 공동운영체, 공동의 프로젝트로 상호협력 이루어야”

▲유 = 다양한 가치를 하나의 정책으로 집중시키는 학생회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다. 학생회를 하고자 하는 이들의 가치관과 학생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의 괴리가 학생들의 무관심을 불러오지 않았나 싶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개개인들의 의사와 요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소통의 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 = 학생들이 과연 학생회 활동에 무관심한가.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과 관심이 아예 없다는 의미인 '무관심'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다. 학우들이 바로 자신들과 직결되는 학교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그동안 학우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학

생회에 대한 또 다른 관심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정 = 학교는 공동운영체다. 학생회는 간부들에 의해서만 운영될 수 없다. 학교 당국도 마찬가지다. 학교가 학우들의 대표로서 학생회를 인정해 줘야만 학교 운영의 파트너로서 학생들을 인식할 수 있다. 학생, 교직원, 교수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동국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공동의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어떤 프로젝트일지는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문제다.

▲유 = 졸업 후 뉴스를 통해 이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 마음이 편치 않다. 학생회는 내부견제나 비판기능을 늘려 자정능력을 길러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회 자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봐 앞으로 계속해서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 = 다른 대학들과 달리 우리대학은 종합대학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재단과 학교, 교수, 직원 사이에서 학생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 = 종합대학이라고 해서 학교, 교수나 직원 사회에서 특별한 학생회의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생회 자체가 '재단이나 종단에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건학이념을 잘 숙지함과 동시에 학내 다양한 문제해결과정에 있어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학내구성원 서로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인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가치관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연기법이기도 하다. 이는 상호간의 존재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21세기 시대적인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다. 때문에 학생회의 일꾼들은 적어도 불교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현 시대 정신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합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유 = 다른 종교에 대한 제도나 특징에 대해 배타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참선, 명상, 자기성찰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불교가 학교발전과 학문적 연구에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대인들이 급속한 자본주의와 위계질서를 중요시하는 전근대적인 요소들과 혼재된 상황에서, 같이 살아가는 상생의 미덕을 깨달고자 하는 바람이다. 굳이 재단과 학교, 교직원 사이에서 학생회 역할을 따지자면, 학생회는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생동감 있고 새로운 제안들을 동국가족들에게 제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 후배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 = '관심'이란 말로 끝을 맺고 싶다. 자기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것처럼, 학생들과 동국대학교에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해달라. 관심이 가는 곳에 에너지를 쏟게 마련이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눈길이고 행동이다.

▲유 = 08년도 총학생회선거가 우여곡절 많은 선거과정을 거쳤던 만큼 후보가 몇몇이 나오건 기본적으로 말바탕에 깔린 것은 학생들을 위해 복무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정 = 졸업 후 뉴스를 통해 이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 마음이 편치 않다. 학생회는 내부견제나 비판기능을 늘려 자정능력을 길러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회 자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봐 앞으로 계속해서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본다.

▲유 = 졸업 후 뉴스를 통해 이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 마음이 편치 않다. 학생회는 내부견제나 비판기능을 늘려 자정능력을 길러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회 자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봐 앞으로 계속해서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본다.

▲정 = 졸업 후 뉴스를 통해 이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 마음이 편치 않다. 학생회는 내부견제나 비판기능을 늘려 자정능력을 길러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회 자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봐 앞으로 계속해서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본다.

정리 = 신중서 기자  
jongseo@dongguk.edu

# 나의 미래를 더 새롭게 바꾸겠다! 나의 신념은 이룰 수 있는 꿈인가?

YES  
 NO



### 더 큰 꿈을 위한 동국대학교 대학원

- 4년 연속 '수도권 대학특성화 지원 사업' 수행대학 - 영성대학원
- CFA(공인재무분석사) MBA 과정 신설 - 경영전문대학원
- 디지털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 전공 신설 - 언론정보대학원
- 사이버보안 전공 신설 - 국제정보대학원
- 법무대학원 신설 - 문화예술법무전공, 법률실무전공, 미국법무전공

### 2009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대학원명	원서접수기간	전형일	홈페이지	전화번호
경영전문대학원(주간/야간)	11.10(월) ~ 11.25(화)	11.29(토) 10시	http://mba.dongguk.edu	02)2260-8884~5
불교대학원(야간)	11.10(월) ~ 11.21(금)	12.05(금) 5시	http://gsbs.dongguk.edu	02)2260-3096~8
행정대학원(야간)	11.10(월) ~ 11.21(금)	11.29(토) 1시	http://gsps.dongguk.edu	02)2260-3102~3
교육대학원(야간)	11.05(수) ~ 11.14(금)	11.29(토) 2시	http://gsedu.dongguk.edu	02)2260-3110~1
문화예술대학원(야간)	11.10(월) ~ 11.21(금)	11.29(토) 10시	http://gsca.dongguk.edu	02)2260-3606~7
언론정보대학원(야간)	11.10(월) ~ 11.21(금)	11.29(토) 10시	http://gsai.dongguk.edu	02)2260-3733~5
국제정보대학원(야간)	11.10(월) ~ 11.21(금)	11.29(토) 2시	http://gsai.dongguk.edu	02)2260-3733~5
법무대학원(야간)	11.17(월) ~ 11.28(금)	11.29(토) 2시	-	02)2260-3226~7



## 한국 MBA에 GMAT 면제받고 미국 MBA까지, 그게 가능하겠어?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127년 전통의 명문대학인 텍사스주립대학 시스템의 일원

YES  
 NO

GMAT 면제받고, 2년 반 만에  
한국 MBA와 미국 MBA를 동시에!

이제 'Dongguk Business School'에서  
미국 명문 텍사스주립대학(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의  
가치와 명성을 국내 수준의 저렴한 학비로  
한꺼번에 누리십시오!



Dongguk Business School MBA 프로그램

국내 최초 경영학교육 최고 인증 획득  
AACSB(미국경영교육인증원) PAC 승인

- General MBA
- 최신경영이론과 실무까지 제공을 통한 전문경영인 양성
- Culture-Oriented MBA
- 엔터테인먼트경영, 스토리텔링, 문화산업전략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인문 문화경영관리자 양성
- Entrepreneurship MBA
-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 기업의 한정된 경영자원을 극대화하는 기업경영능력 배양
- CFA MBA (신설)
-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투자분석전문가 양성(CFA : 공인재무분석사)

### 2009 전기 신입생 모집

- 원서접수 : 2008년 11월 10일(월) ~ 11월 20일(목) \*특별전형 : 2008년 12월 15일(월) ~ 2009년 1월 30일(금)
- \*02-2260-8884~5 / mba.dongguk.edu





### 불교학 연구회 주최 2008 추계 학술대회 '근대 한국 불교의 자화상'

# 교육·저항정신 지녔던 근대 불교계, 현대 불교계에 '일침'

## 사회 변화 못따르는 오늘날 불교 되짚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지난 8일 열린 불교학 연구회의 추계학술대회 모습

‘과거의 항수를 잊지 못해 불평하는 것처럼 보여 안타까운 불교계’

위 표현은 불교계가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을 반발하여 대규모 종교편향 규탄 대회를 열었을 때 그들의 모습을 묘사한 기사의 한 대목이다.

낯선 서구 문물과 가치관의 유입으로 인해 사회적 격동기였던 근대 개화기에 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도했던 지식인들은 대개 불교계의 인물들이었다. 또한 서구의 침략으로 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불교계는 ‘민족의식’을 강조하며 누구보다 국가의 자주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불교계는 이러한 근대화 시기의 독자적인 역할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대 한국불교의 자화상’이라는 주제로 지난 8일 오전 9시부터 학술문화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학술대회는 개화기의 우리 불교 모습을 통해 현재를 반추하려는 기획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학술대

회에서는 ‘근현대 한국 불교 철학 연구의 성과와 전망’, ‘근대 일본불교의 대외진출과 한국불교’, ‘근대 불교계의 민족의식’, ‘근대 전통불교에 대한 인식과 계승’, ‘근대 한국 불교의 형이상학 수용과 진여 연기론의 역할’이라는 총 5개의 소주제를 발표하여 근대 한국불교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가장 눈에여겨볼만한 주제는 ‘근대 불교계의 민족의식’이었다. 근대화 시기에 ‘민족주의’를 누구보다 먼저 인식하고 사회 개혁에 노력했던 불교계의 모습을 통해 현재 불교계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요소를 조금이나마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와 불교가 결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외세의 침략 앞에서 국민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불교계는 외세의 침략에 맞서 도탄에 빠진 민중들을 구하고자 노력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계는 ‘민

족’이라는 개념을 수용하여, 서양에 대항할 수 있는 국민적 통합을 일깨우고자 했다. 불교계는 개항기 초 개항장 근처에 소학교 설립 및 여성을 중심으로 한 실업 교육과 같은 근대교육을 추진했다. 물론 일본 교단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비판받지만, 근대 교육을 통한 민족 위기 타개를 모색했다는 점에서는 주목 받을 만하다. 이러한 불교계의 민족주의는 점차 발전하여 한용운의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에서 세계 민족주의라는 진보된 개념을 제시한다. 이 글은 자유, 평화, 평등의 정신이 녹아 있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독립사상으로 집약되어 나타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용운은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여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한 절대 독립을 주장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넘어 서서 세계평화를 지향했다는 점이 독특하다.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도 학문적 진보를 이루어내고,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구하고자 노력한 근대 불교계의 모습은 현재 불교계의 모습을 다스린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근현대 한국 불교 철학 연구의 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뤄진 발표는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불교철학 연구 현황을 살펴봤으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불교 철학의 문제점과 전망을 제시하며 마무리를 지었다. 이종표 전남대 교수는 현재 불교철학의 가장 큰 문제가 ‘연구 인력의 부족’이라고 지적하며, 동국대를 위시한 몇몇 종합대학을 제외하면 불교를 전공하는 교수가 있는 철학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다. 더불어 불교가 우리나라 역사에 끼친 영향을 생각할 때, 정책적으로 어떤 철학보다도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근대 일본 불교의 대외진출과 한국불교’에 대해 다룬 제 2발표의 발제자인 원영상 원광대 교수는 일본의 근대불교가 아시아주의의 논리의 확산에 따라 그 역사적 흐름을 같이 했다는 것을 밝히며, 식민지 지배에 있어 일본의 근대불교가 식민지 앞잡이의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항기 한국 불교가 이러한 일본 근대 불교의 국내 확산 과정 속에서 갈등을 느끼고, 때로는 저항하며, 자신의 구조 개혁에 시급함을 느끼며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근현대 한국불교철학 연구의 성과와 전망’, 제 4발표에서는 현대 한국불교학의 ‘대부’라고 불리는 ‘김동화’가 거론되었고, 그가 현대 한국불교학에서 세운 업적들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김동화는 불교학 연구의 목적을 경론의 취지를 이해함으로써, 전 불교 교리를 종합적으로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인식해야 함을 주장한 학자이다. 그는 후학들이 현대적으로 불교를 연구할 수 있도록 불교학 모든 분야에 토대가 되는 저술을 남겼다는 점에서 인정을 받았다.

‘근대 한국불교의 형이상학 수용과 진여연기론의 역할’ 발표에서는 불교가 칸트와 같은 서구 철학과 결합되어 철학화되는 경향에 대해 다뤘다. 불교가 형이상학적 세계에 대해 인식하고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진여 연기론이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가지며 등장했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번 불교학 연구회의 추계 학술대회는 위기에 처해 있는 현대 불교계가 근대 불교계의 모습을 통해 반성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뜻 깊은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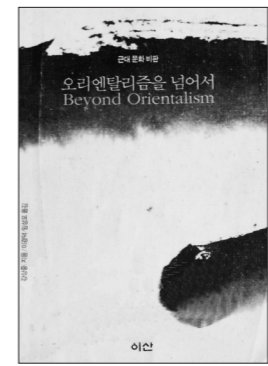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김호성 교수의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 비판적 책 읽기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지은이 : 강상중  
옮긴이 : 이경덕·임성모  
펴낸곳 : 이산

아르헨티나의 작가 보르헤스(1899~1986)는 “많이 읽거나 한 번 읽기보다 다시 읽기가 더 좋다”(이남호, ‘보르헤스 만나러 가는 길’, 민음사, p.36)고 말한다. 다시 읽는 것은 처음 만났을 때 알 수 없었던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닫기 때문이라. 동국대대학장 강상중(姜尙中, 1950 ~ ) 교수의 책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역시 내가 두 번 읽은 책이다. “명저다!” 저자는 ‘자이니치(在日)’, 즉 일본에서 태어난 우리의 교포로서 정치학을 전공하였다. 이 책에 실린 6편의 글들은 주제를 향한 구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금씩 밖으로 탈주(脫走)해 간다. 어떻게 변주가 이루어지는지 따라가는 맛이 있다.

그런데,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제를 고백하는 첫 번째 글 ‘규율과 지배하는 지식 - 베버·푸코·사이드’이다. 이는 차라리 철학 에세이라 해야 할 것 같다.

철학은 자기철학이다. 자기를 사색의 대상으로 삼고서, 그 내적 고백을 토해내는 것, 그것이 철학이라는 말이다. 철학은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 저자는 첫 번째 글에서 자기에 대해서 말한다. 그의 모든 작업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사상적 토대를 드러내는 것이다.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라는 제목만으로, 우리는 그가 사이드를 스승으로 삼는다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사이드가 스승으로 삼은 푸코를 스승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푸코 앞에 베버를 놓고 있음에 나는 놀란다. 베버는

합리성의 근대를 추구한 사회과학자 아니던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베버는 기회 있을 때마다 다 역망의 다양하고 상호교차하는 미시권력의 계층질서 속에 개개인이 유순하게 배분되고 영속적으로 편입되어 가는 모습

### 동국대 강상중 교수의

### ‘자기철학’ 분석 통해

### ‘종학’ 뛰어넘는 ‘불교학’ 찾기

을 엄세적으로 그려 보이는데, 그 이야기는 어딘가 수도원의 폐쇄된 사생활이나 감옥을 연상시키는 것이었다.”(p.36) 폐쇄된 감옥의 이미지에서 우리는 푸코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푸코 앞에 베버를 놓는 저자의 관점은 우리의 눈을 좀더 넓게 띄워준다. 실제, 그 자신의 편력은 ‘베버 → 푸코 → 사이드’의 길을 따라서 이루어졌다 한다.

책 여백에 불교학에도 받아들여야 할 여러 가지 입장들을 적어놓았다. 그 중에 하나 : “종학(宗學)의 문제 = 권력의 지식화, 지식의 권력화.” 종학은 종파의 학문이라는 말이다. 자기 종파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의식에서 행해지는 학문이라는 뜻인데, “푸코에 의하면 모든 지식의 발전이 권력의 행사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굳게 연관되어 있고”, “권력이 그 나름의 지식을 산출한다”(p.72)면, 종학에는 객관적 보편성이나 종파적 이해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게 된다. 그런 까닭에 종학은 불교교단이 권력다툼에 매몰되는 것을 막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칫 방조까지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게 된다. 종학을 넘어서 불교학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이다.

원서보다 더 뛰어난 번역서가 있을까? 있다. 이 책이 바로 그렇다. 원서에 없는 ‘보론 : 내적 국경과 래디컬 데모크러시 - 재일(在日)의 시점에서 -’라는, 일본사회 안에서 저자의 고뇌와 입장이 담겨져 있는 글이 덧붙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실한 ‘옮긴이 주’까지 있기 때문이다. 임성모 선생이 번역한 ‘번역과 일본의 근대’(이산) 역시 원서보다 더 우수한 번역서였다. 모두 일본어 번역을 뜻하는 후학들이 전범으로 삼을 만하다.



강연 중인 주강현 제주대 석좌 교수

### 민속학자 주강현 교수 4일 도서관서 초청특강

## ‘아침햇살’ 예로들며 문화표전락 강조

교양교육원 글쓰기 센터가 주최한 제2회 명사 초청 강연이 지난 4일 중앙도서관 AV실에서 열렸다. 이번 강연에는 한겨레 신문에 ‘우리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시리즈를 1년 동안 연재하면서 인기 필자로 떠오른 민속학자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가 초청됐다.

강연은 ‘삶의 무늬, 글,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를 주제로 우리 주위에서 무당, 장승 등 흔해서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우리 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그는 글을 잘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인터넷 상에 필요한 정보를 갈무리한 후, 그 정보를 인쇄해 책으로 만들어 정기적으로 읽어 보는 것이 글의 배경지식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틈틈이 메모하고 작문하는 습관은 글을 잘 쓰기 위한 척도”라고 조언했다.

그가 저술한 ‘우리문화의 수수께끼’는 총2권으로 이뤄져 있다. 1권은 우리민족의 의식과 생활 속에 가장 원초적으로 자

리한 문화현상을 탐구한 교양서이고, 2권은 우리에게 익숙한 소재이지만 너무 흔해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문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그는 이번 강연에서 ‘식혜’와 ‘아침햇살’ 등 우리의 고유음식문화가 상업화 된 사례를 들려 우리문화를 전락할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강연은 민중들의 일상사와 역사민속학과 같이 학생들에게 낯설게 여겨질 수 있는 분야에 소거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 제1회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 개최 목적**

- (1) 개방과 경쟁을 통한 공학교육발전 방향 및 공학교육체계의 재조명
- (2) 세계시장의 개방에 따른 Global 인재양성의 필요성
- (3) Global 산업 및 연구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생들의 자기개발과 자발적 홍보체계 구축
- (4) 미래의 고용주에게 엔지니어로서 자신의 전문적인 재능을 표출하는 기회 제공
- (5) 짧은 면접에서 자신의 학습경험 및 전공기술능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경험 제공
- (6) 자신의 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능력 및 효과적 전달 능력 배양 유도

**■ 참가 대상** : 공과대학 재학생 (공학인정 대상 3, 4학년은 모두참가)

**■ 제출기간 및 제출처**

(1) 제출기간 : 2008.11.24(월) ~ 11.28(금) 오후 5시까지  
- 제출양식은 공학교육혁신센터 (http://iceed.dongguk.edu)의 '센터소개'의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처 : 해당 학과 사무실

**■ 포트폴리오 작성**

(1) 학생 포트폴리오는 다음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합니다.

- 1 학생포트폴리오 점검표 (양식1)
-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2)
- 3 수학계획서 (양식3)
- 4 각 프로그램 이수 점검표 (양식4)
- 5 교과과정 로드맵 (양식5)
- 6 상담내역 기록표 (양식6)
- 7 설계 및 이수교과 과제를 요약서 (양식7)
- 8 비교과영역 요약표 (양식8)
- 9 기타 (전공과는 별개의 흥미와 관심이 있는 분야) (자유양식)

(2) 첨부자료

10. 첨부자료 (양식 7과 8의 증빙자료-사진, 증명서 등)
- (2) 학생 포트폴리오의 내용은 사본으로 작성 가능하며, 학과에서 제공되는 포트폴리오 바인더에 표 형식의 순서에 맞추어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학생 포트폴리오의 모든 자료는 바인더에 첨부된 CD에 저장하여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CD로 제출된 자료는 통합시스템의 e-포트폴리오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개인별 추가 입력할 자료이므로 첨부자료는 스캔을 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분야** : 건축공학, 기계공학, 사회환경시스템공학, 산업시스템공학, 전기공학, 화공생명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총 9개 공학 프로그램

**■ 제출물** : 학생 포트폴리오 바인더 (제출 자료와 CD 포함)

**■ 심사 일정**

(1) 학생 포트폴리오 심사  
- 1차 심사(학과) : 2008.12.1(월) ~ 12.5(금)  
→ 학과별 5명을 선별하여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자료와 함께 통보.  
- 2차 심사(센터) : 2008.12.8(월) ~ 12.12(금)  
→ 2차 심사(센터) : 2008.12.19(예정)

(2) 학생 포트폴리오 시상식 : 2008.12.19(예정)

**■ 포상**

(1) 대상(1명) : 장학금 100만원  
(2) 금상(1명) : 장학금 60만원  
(3) 은상(1명) : 장학금 30만원  
(4) 동상(4명) : 장학금 15만원 (총 60만원)

**■ 주최** : 공학교육혁신센터 ☎ 2260-8859

**동국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 예코포럼 제26회 정례세미나 안내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이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에 자살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높은 자살률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이며, 20~30대 사망 원인 1위 역시 자살입니다. 이에 생태환경연구센터는 26회 예코포럼 정례 세미나에서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한 우리 사회의 자살 현상을 다루려고 합니다. 발제자 김지하 시인을 비롯하여 토론자로 참여하는 세 분 역시 종교적 관점에서 자살 문제에 대해 깊이 연구한 전문가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OECD 자살을 1위인 한국의 현실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 현황분석과 대안을 생각해본다.

**■ 일 시** : 2008년 11월 21일(금) 오후 3시

**■ 장 소** : 동국대학교 다양한 세미나실

**■ 발제자** : 김지하 시인 (생태환경연구센터 석좌교수)

**■ 토론자**

- 홍광의 교수 (대한자살예방협회 회장, 분당 서울대병원원 신경정신과 교수)
- 정재영 교수 (실천신학대학원 교수,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공동저자
- 윌 호스 님 (생계사 승가대학 교수, 《연경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저자)

2시 50분	등록
3시	인사말 김일중 교수 (생태환경연구센터장)
3시 10분	발제 김지하 시인 '생명에 관한 한 생각'
4시	휴식
4시 20분	토론 홍광의 교수 (대한자살예방협회 회장, 분당 서울대병원원 신경정신과 교수) 정재영 교수 (실천신학대학원 교수,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공동저자 윌 호스 님 (생계사 승가대학 교수, 《연경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자)
5시 20분	종합토론
6시	폐회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센터**

### 공직적성시험 대비 계절학기 강좌개설 안내

문과대학 주관 공직(법학, 치의학)적성시험 대비 겨울계절학기 특별강좌를 다음과 같이 개설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개설강좌(총 2강좌, 강좌별 2학점)**

가. 비판적사고와 논술 연습(Argumentative Essay Practice) - 논술/기초논리학영역 : 김영식교수(동국대 박사수료, 대한고교사 논술팀 강사, 동국대 및 경기대 논리논술 강외, 논술지도사 체점위원 등)

나. 논증적 사고특강(Special Lecture for Argumentative Thinking) - 언어이해영역 : 홍성훈교수(동국대 박사수료, 비판적사고와 논술연구회 창립회원, 동국대 및 경기대 논리논술 강외, 독서지도사 전문강사, 출제 및 검수위원, 논술지도사 체점위원 등)

**2. 개설기간** : 2008.12.22(월) ~ 2009.01.16(금)  
겨울계절학기 기간  
\* 겨울계절학기 정규강좌로 과목당 2학점씩 인정

**3. 수업요일** : 주 4일 수업(월, 화, 목, 금), 15일간

**4. 수업시간 및 담당교수 :**

구분	오전	오후
수업시간	10:00 ~ 12:00	13:00 ~ 15:00
해당강좌	비판적사고와 논술연습 (DEV9005)	논증적 사고특강 (DEV9001)
담당교수	김명식교수	홍성훈교수

**5. 수강자격** : 제한 없음

**6. 수강료**  
1학점당 85,000원

**7. 추진 일정**

구분	기간	내용	비고
1차 수강신청	11.04(화) ~ 17(월)	계절학기외	전화 또는 방문신청
1차 수강료 납부	11.18(화) ~ 20(목)	동일	신한, SC제일, 농협

\* 문과대학 학사운영실(02-2260-3756, 명진관 1층)에서 접수.

**8. 2차 수강신청**  
가. 재학생 및 일반인 : 문과대학 학사운영실로 12월18일(목)까지 전화 또는 방문신청(02-2260-3756)

**9. 기타사항**  
가. 성적평가 : A~F 등급평가  
나. 경주캠퍼스 및 교류대학(건국대, 경희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 한국의국어대) 학생도 해당 대학 학칙에 따라 학점 인정

\* 세부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문과대학 학사운영실(02-2260-3756, 이메일 gilhm@dongguk.edu)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과대학 학사운영실**

달하나천장에

쌀 직불금 파문과 공직 윤리 제고 방안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대규모 공직 부패 현상이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사태에는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상·하위직을 가릴 것 없이 대규모 공직자들이 집단적으로 연루되었다. 공직자 개인 수준의 일탈 행위로 인한 공직 부패 차원을 넘어서 구조적이고 제도화된 부패 현상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쌀 직불금 수령자가 총 150만 명이고, 이중 약 5만 명 정도의 공직자들이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다. 이들 공직자들 중에서 부당수령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앞으로 정부의 추가 조사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최종 조사 결과가 어떻게 귀결되는가에 관계 없이, 현재 드러난 현상만으로도 이번 사태는 정부 관료제와 공무원의 행태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쌀 직불금을 수령한 5만 명 정도의 공무원이 정당한 수령자라고 가정할 경우, '농사짓는 일'을 겸업이나 부업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 규모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아직도 근대 관료제의 핵심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전업제의 원칙'이 구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

근대 전업제의 원칙

베버(M. Weber)는 근대 관료제 구성요소의 하나로 '전업제의 원칙'을 설정하면서 공무원들은 그 업무를 유일한 직업으로 하다가 적어도 이를 주된 직업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겸업·부업을 하고 있는 직원은 정부 관료제의 직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규모 공무원들이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은 이들의 정당 또는 불법 수령 여부를 떠나 근대 관료제의 기본적 구성요소인 '전업제의 원칙'마저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었다.

정부 관료제의 전업 직원이 공무원들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공직윤리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유재의 비극

한편,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예산의 집행 결과와 관련하여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정부예산 운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유재의 비극'이 현재화 되었다는 것이다. 뷰캐넌(J.M. Buchanan)은 일찍이 정부 예산의 '공유 재산 효과(common property effect)'를 설화하였다. 세원은 정부 전체의 공유 재산이고,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정부의 지출은 특정 집단이 소비하는 개별 재화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출을 남용하는 '공유재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은 당초 농업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2005년부터 확대 도입되었다. 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직불금의 정당한 수령 대상자는 농업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농민에게 속하는 농민이어야만 한다. 그런데도 쌀 직불금에 설계가 영성하여 당초 정책목표와는 관련 없는 부정당 자격자들이 직불금을 대규모로 수령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예산이 내포하고 있는 '공유재산효과'로 인해 직불금제도를 설계한 정부 주무부처와 공직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자행한 것이다. 비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직불금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데도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없이 미봉책으로 일관하다가 1조 7천억원 정도에 달하는 정부 예산 집행의 부실화를 초래하였다.

공직윤리 확보 필요

결국 이번 공직자의 쌀 직불금 수령 사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기회주의적 이익추구행위 동기를 전제로 한 공직윤리 확보 및 재정 지출 통제 방안 설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앞으로 정보공유를 통한 투명성 제고와 함께 공무원의 기회주의적 이익 추구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 예산을 둘러싼 공유재산효과를 차단할 수 있는 사업 타당성 분석 활동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박 채 기

사과대 행정학과 교수



보리수

우리시대의 진정한 벗

성열스님

강남포교원장



과거에는 인간성이니 양심이니 하는 것들이 인간본유의 특성이니 것처럼 믿었지만 현대과학은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믿음에 기초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일찍이 사람들이 마음으로써 서로를 이해하는 관념에는 불변의 실체는 없다고 하여 諸法無我(제법무아)를 가르쳤으니, 2천 5백여 년 전의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오늘에까지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항을 찢던 종이에 한나가 배고, 생선을 튀었던 새끼줄에는 비린내가 밴다'고 한 법구비유경의 가르침은 바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좋은 사람들과 교우관계를 가져야 할 것임을 일깨운다.

어느 날 옷자아 라는 젊은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 '세속에 사는 속인이 현실 속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여쭙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네 가지 조건을 들었는데, 그 하나가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이라 했다. 부처님의 이 같은 말씀은 전해 들었는지, 다른 젊은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 '좋은 친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여쭙었다. 부

처님은 그에게 '비유하면 달과 같다'고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좋은 친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여쭙었더니, 부처님께서는 '그 역시 비유하면 달과 같다'고 했다. 그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지, '좋은 친구도 달과 같고, 좋지 않은 친구도 달과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따지듯이 물었고,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기를, '좋은 친구는 초승달과 같고, 좋지 않은 친구는 보름이 지난달과 같다'고 했다. 이쯤 되면 부처님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했겠지만 자꾸마에 전해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인생에 있어서 딱이 있는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반대로 사악한 자와 사귀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보름이 지난달은 매일매일 쪼어드는 것처럼 나쁜 친구와 사귀면 파멸을 경험하게 된다. 초승달은 매일매일 커지는 것처럼 좋은 친구와 사귀면 파멸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

패경조란 이들의 경전에는 친구를 네 가지 부류로 분류하기도 했는데, 꽃 같은 친구[花友], 저울과 같은 친구[稱友], 산과 같은 친구[山友], 땅과 같은 친구[地友]가 그것이다. 이에 대한 의미는 지면상 독자들이 생 각해 보기를 바란다.

동문칼럼

최선의 길

진부한 말이지만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다. 언젠가는 죽음으로 끝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이 쌓아놓은 발자취를 생애라 부른다. 사람은 그 생애 동안 뉘가를 생각하고, 이루고, 마친다.

얼마 전까지 책을 한 권 만들면서 정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읽게 됐다.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 처지에 따라 온갖 다양한 일들을 벌여왔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마침표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했다.

마침표를 찍은 것이야 모두 같아도, 마침표를 찍기까지의 행적을 보면서 아주 평범하지만 아주 진지한 고민을 했다. 그들은 자기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생애에 돌이켜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과연 만족했을까? 후회했을까?

사람이 자신의 삶을 만드는 것은 결국 주어진 상황에 대한 끝없는 선택의 과정이다.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그리고 사람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해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간다. 어둡고 불안한 시대일수록 선택은 어려워지고, 그 선택의 결과 또한 판이하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다.

조선 왕조가 망하고 국권을 빼앗기던 때가 있었다. 그 혼란의 와중에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선택을 했다. 망국에 기여함으로써 이익을 얻어 안락과 행복을 얻은 사람과 이에 끝까지 저항하다 고통 받고 목숨까지 잃은 사람. 우리는 전자를 '매국노'나 '친일파'라 부르고, 후자를 '독립운동가' 또는 '애국지사'라 부른다.

지금 돌아보니 그 사람들은 모두 망자가 되어 있다. 선택의 순간에 눈앞의 이익을 추구한 사람이나 정의와 대의를 위해 고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다 지금은 죽었다.

죽음이 현실이 되는 자리에 서면 천만금의 재산이나 만인을 거느리는 권세라 해도 다 부질없는 것이다. 남는 것은 마침표에 자신은 어떤 관여도 할 수 없게 된다.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 나는 정말 그 사람들의 마지막 생각이 어떠했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나 나름대로 이런 답을 얻게 되었다.

생애가 진행 중일 때, 삶이 완성되기 전에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고. 내가 내 삶에 관여할 수 있을 때 만족하며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가야 한다고. 다행히 우리의 삶은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으니 말이다.

임 중 옥

동문·국문85졸

작가



동대신문을 읽고

기성언론과 차별화 필요

매주 전국의 대학에서 수많은 신문들이 편집국으로 배송된다. 여러 대학의 신문을 볼때마다 기사에서 얼마나 그 대학신문만의 특징이 드러나는지, 해당 기사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게 된다.

이번 1466호 동대신문의 '문화'면에서는 가을을 맞아 '이색주점'을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사케, 맥주, 카테일 별 이색주점을 이용하는 팁과 판매하는 메뉴들에 대해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약도와 함께 '이번주 동대신문을 가지고 가면'이라는 조건을 달고 독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흥미로운 것은 기획면도 마찬가지였다. 기획면에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에 관한 외부 전문가의 글이 실렸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감세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세밀하게 분석

한 점은 좋았다. 하지만 하나의 글안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 한번에 소화하기가 힘들었다. 그보다는 전체 주제에 대해 다양한 방향으로 기사를 세분화 했다 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예를 들어 직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 여러 분야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의 입장에서 기사가 직접 작성한 쪽지 기사들은 메인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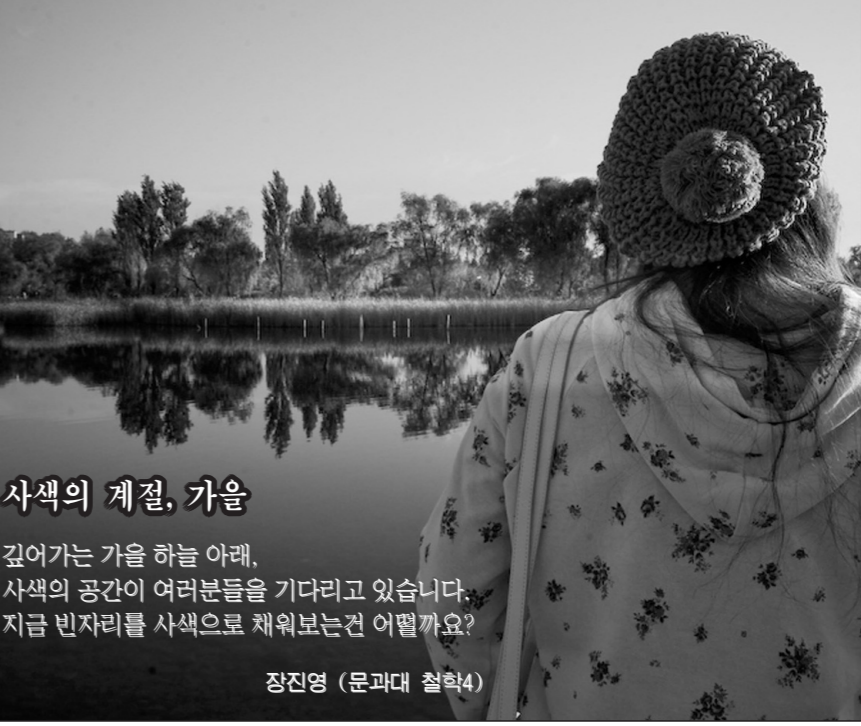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매체가 넘쳐나는 요즘, '어떻게 하면 예전의 많은 독자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는 모든 대학 학보사에서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대학신문은 인적·물적 자원, 시의성 측면에서 기성언론과 경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다면, 대학신문은 기성언론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독자를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기존 제도권의 시각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대학생 기자들의 발랄한 상상력과 끊임없는 고민을 바탕으로 동대신문다운, 동대신문스러운 '동대신문'이 되길 바란다.

구 대 회

중대신문 편집장



독자사진첩



사색의 계절, 가을

깊어가는 가을 하늘 아래, 사색의 공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빈자리를 사색으로 채워보실건 어떨까요?

장진영 (문과대 철학4)

Advertisement for Dongguk University TESOL program. Includes phone number 1588-1625, website www.timestesol.com, and text '내가 토익점수 올리고 열 올리고 있을때' and '엄.친.아.는 이미 취업했다'.

Advertisement for Dongguk University English Camp. Title: '와~ 55만원에 영어캠프를???' '선착순 60명 한정!!!'. Includes details about the camp, contact info, and English Speech & Writing Clinic.

Table with 2 columns: Program Name (e.g.,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아리수) and details (date, location, fee).

논단

오바마 당선, 막연한 기대감은 금물

1990년 2월,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술전문지 'Harvard Law Review' 편집실은 새로운 편집장의 선출을 놓고 격투이 이어졌다.

당시의 하버드 법대는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격렬히 대립하였고, 'Harvard Law Review'의 편집부는 그러한 논쟁의 핵심에 위치했다. 계속되는 투표와 논쟁 속에서 회의가 늦은 저녁까지 계속되던 어느 시점, 보수파의 한 백인 학생이 발언을 자청하였다. "나는 버락 오바마를 'Harvard Law Review'지의 편집장으로 지지합니다. 버락 오바마와 나는 분명히 여러 이슈에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념적으로 같다고 반목하는 상황에서 오바마 만이 모두를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법학전문 학술지 'Harvard Law Review' 104년 역사상 최초의 흑인 편집장은 이렇게 탄생하였다.

미국최초의 흑인 대통령

2008년 11월 4일 미국은 제44대 대통령으로 버락 오바마를 선택하였다. 오바마는 선거인단 349명을 획득, 162명에 그친 메케인을 압도하였으며, 전체 유권자 득표율에서도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였다.

이번 대선에서 오바마는 약 1억 3천만 명에 이르는 전체 투표 참가자들 중에서 역대 최다인 6천325만표(약 52%)를 얻는데 성공했다. 이는 지난 1964년 대선에서 당선된 린든 존슨 전 대통령 이후

민주당 후보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플로리다, 버지니아, 오하이오의 경합주 (swing states) 또한 오바마의 손을 들었다. 링컨이 노예해방을 공식적으로 선언한지 150 여년, 1960년대의 민권법, 투표법을 통해 흑인들이 실질적인 참정권을 획득한지 43년 여 만의 흑인 대통령의 탄생이었다.

오바마에 대한 기대감

오바마의 당선은 미국 건국 232년만의 최초의 흑인대통령의 의미를 넘어 미국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연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미국 대선은 1960년 케네디-닉슨 선거이후 유권자의 참여가 가장 두드러진 선거였다. 흑인, 히스패닉 계층은 물론 정치에 무관심했던 청년층이 대폭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치엘리트의 교체와 함께 정치참여에서도 미국정치에 커다란 획을 그었다.

오바마의 당선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흥분과 기대를 불러오고 있다. 울초 오바마의 유럽 방문길에서 베를린 광장에 모인 20만 명의 인파는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를 단면적으로 드러내는 예이다.

미국 대선결과를 지켜본 많은 이들은 미국이 종전 후 패스 아메리카의 오만함을 버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구하는 새 시대로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이란, 쿠바, 북한 등과 같은 적성국과

도 먼저 대화를 시도하겠다"라는 오바마 외교정책의 기초는 오랜 경쟁일변도의 한반도 정세에도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

우리 내 정파와 언론들도 오바마의 당선이 한반도의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이다. 진보세력은 새로운 진보의 세기, 새로운 북미화해의 시대가 열린다며 자축하고 있고, 보수 세력은 나름대로 '유약한' 미국이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질질 끌려 다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형국이다.

오바마에 대한 환상

오바마의 당선이 역사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오바마에 대한 '장밋빛' 일변의 기대는 지나친 감이 있다. 먼저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은 오바마 역시 미국 기성정치권을 통해 등장하고 성장한 인물이란 점이다. 오바마가 연방정치권에서는 참신한 인사이고, 최초의 비백인 대통령임은 분명하지만, 오바마는 시카고 주 상원의원을 3회 연속 역임한 베테랑 정치인이다. 오바마의 연방 상원의원 법안투표를 살펴보면 오바마의 이념적 성향은 힐러리 클린턴이나 민주당의 지도자보다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오바마가 외치는 이념과 인종, 성별과 세대의 갈등을 넘어선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은 어디까지나 미국 내부에 국한된 것이요, 여전히 미국 대외정책의 근간은 미국의 국익이 우선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김준석 시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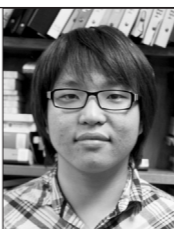
오바마의 외교가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 미국우월주의와는 색깔을 달리할 것임은 확실하다. 하지만, 오바마가 한반도에 평화를 선물할 것이라 보는 시각도 지나친 기대심의 발로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바마 또한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익에 위해가 있을 경우 "무력의 활용이 있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오바마는 대통령 취임 후 이라크에서 16개월 내의 철군을 약속하고 있으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탈레반-알카이다 색출작전의 강화는 물론, 필로시 16,000여명의 미군을 증파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부시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보았던 것과는 표현과 정도는 다르지만, 오바마와 민주당에게도 북한은 여전히 불량국가임은 자명하다. 미국은 집권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 간에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외정책을 결정하여 왔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았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미국 내의 변화는 물론, 주변의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양상을 달리할 것이다.

냉철하고 전략적인 대처 필요

매케인이 당선될까봐 전전긍긍 우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현재 오바마의 당선에 회희낙락할 필요도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바마 정부의 움직임을 침착하고 차분하게 예의주시하며,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냉철한 셈법일 것이다.



정동훈 편집장 gfd1226@dongguk.edu

보 등의 명목으로 암암리에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 왔었다.

▲ 물론 학업과 연애 활동을 병행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수업결손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연애인 재학생들이 연애활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로 인한 수업결손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그것을 학교와 학생사회가 묵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애활동을 하는 재학생들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수성이 특권으로서 다뤄진다면 제동이 필요하다.

학생을 상하로 나눠 각기 다른 잣대로 평가해선 안 된다.

▲ 그것은 비단 학교와 학생사회만을 위한 일은 아니다. 연애활동을 하는 재학생들도 이러한 태도를 지속한다면 대학사회, 대학교육에서 유리된 채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대학이 단순한 명목상, 형식상의 '계약'과 같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들은 대학사회를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연애인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환상, 괴리감 등을 형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대학은 학문탐구의 요람이다. 연애인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프로필란에 집어넣기 위한 '대학'은 허울일 뿐이다. 대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

사설

기부문화 확산의 전제조건

2008년 우리대학 기부금 현황(10월 말 기준)이 약 64억원으로 집계됐다. 기부가 집중되는 연말이 남아있어 올해 모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학교 측 관계자는 올해 기부금액을 1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모금액이 가능하

다면 작년 모금액 54억 원, 100주년 당시 모금액 59억 원에 비해 크게 늘어나 역대 최대 모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부자 예를 위한 '명예의 전당'과 작년부터 실시된 Come together 행사 등을 통한 동문 네트워크 강화가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겠다. 재단의 수익원이

전무한 형편이고 앞으로의 기금 마련을 위한 계획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부금 모금은 더욱 중요하다. 경제위기로 인해 아름다운 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마저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우리대학은 오히려 기부금이 크게 늘어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경기가 나아졌을 때 기부가 더욱 활기를 띌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는 13일 열리는 Come together 행사는 기부금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명예의 전당을 비롯한 기부자 예우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구체화되고 있는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제시함으로써 동문들에게 기부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자리에서 휴먼 바이오셀이 고양 메디칼러스터에 130억 원을 지원하는 MOA체결과 함께 30억 기부를 약속함으로써 올해 목표인 100억 원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부문화도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너도나도 기부하려는 문화를 형성하고 독려하는 분위기가 절실하다. 기부문화에서도 102년 동국대학교의 역사는 어떤 자산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닐 것이다. 사회각층에 퍼져있는 동문들이 모교발전이라는 뜻을 규합할 수 있다면 기부금 모금은 더욱 확장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미국 대학들의 경우 대학의 발전기금을 모금하는 부서의 직원수가 보통 100여명이 넘는다. 우리대학의 경우 64억원을 모금한 대외협력실의 직원은 단장을 포함해 6명이다. 이런 규모의 조직으로는 100억원 이상의 모금을 기대하기 어렵다. 선진적인 기부금 모금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는 전문가 영입과 조직확대는 필수적이다. 이제 대학의 경쟁력은 기부금 모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금부서에 대한 인적인 투자와 지원은 너무도 절실하다.

만평

정명근 gmg@naver.com



두가지 변화, 그리고 가능성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윤재웅 편집장 정동훈

해외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통합인문학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2008 동국대학교 해외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1. 프로그램명 : 2008 동국대학교 해외문화 체험교육
2. 신청자격 : 2008학년도 2학기 현재 문과대학 재학생 또는 문화 분야 연계전공(문화학, 문화공학, 문화기획) 이수 재학생으로서 30학점 이상 취득자
3. 방문대학 : 일본 고치대학 및 중국 길림대학 주해학원
4. 방문기간 : 가. 일본 고치대학 : 2009. 01. 06 ~ 01. 13 (7박 8일) 나. 중국 길림대학 : 2008. 12. 21 ~ 12. 28 (7박 8일)
5. 신청 및 선발 일정 : 가. 신청서 제출 기간 : 2008.11.12(수) ~ 11.18(화) 나. 선발결과 발표 : 2008.11.21(금), 문과대학학사운영실 게시판에 공고
6. 선발인원 : 가. 일본 고치대학 : 15명 내외 나. 중국 길림대학 주해학원 : 15명 내외
7. 선발방법 : 가. 2008학년도 1학기까지의 성적 70% 및 참가 신청서 평가점수 30%를 합산한 성적순으로 선발함. 나. 일본 고치 및 중국 길림대학 총 파견인원 15명 중에서 11명은 문과대학 재학생, 4명은 문화 분야 연계전공 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함. 다. 문과대학 재학생으로서 문화 분야 연계전공 이수 학생은 문화 분야 연계전공 선발대상으로 지정하여 선발함. 라. '2008문화상품 기획·창작 공모전' 금상수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함.
8. 경비지원 : 소요비용 전액 통합인문학특성화사업단의 국고지원금으로 지원함.
9. 성적반영 : 2008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성적으로 반영함. 가. 교과목명: 해외 현장 학습 나. 학 점: 3학점 다. 성 적: P/F
10. 유의사항 : 본 해외문화 체험교육에 선발된 학생은 2008학년도 개설예정인 기타의 계절학기 강좌를 수강할 수 없음(강좌개설기간 중)
11. 신청서 제출처 및 연락처 : 가. 신청서 제출처: 통합인문학특성화사업단 기획사업팀(계산관 2층 문화학습원 내) 나. 연락처: 전화번호 2260-8644
\* 본 프로그램은 해당 외국대학 등 사정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증축 안내

쾌적하고 여유 있는 열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앙도서관 1개 층을 증축합니다.

- 1. 공사기간 : 2008. 11. 7 ~ 2009. 6. 30 (약8개월)
2. 공사개요 : 지상 1개 층 증축(열람좌석 약 875석), 옥상 조경공사
3. 기타 : 가. 공사기간 중 장중문화체육센터 독서실 이용(무료) 나. 기말고사 기간 중 공사 중지(2008.12.8~19) 다. 엘리베이터 사용 중지(2009.1월 예정) 라. 공사 기간 중(특히, 11.7~11.30)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 양해

동절기 공사 지연 방지를 위해 부득이 학기 중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기간 중 도서관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소음 등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학생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적도서 4차 판매 행사

- ▶ 기간 : 2008.11.10~11.14(5일)
▶ 시간 : 09:00~17:00
▶ 장소 : 중앙도서관 전시실
▶ 종류 : 사회 과학 분야
▶ 수량 : 3,000여 책(목록 홈 페이지 참조)
▶ 판매가 : 500원 균일
▶ 판매 방법 : 자율 지불
▶ 판매 대금 : 교비 환입
▶ 주의 :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반출시 경고음이 울립니다.
▶ 기타 : 판매 후 남은 자료는 2009학년도 1학기 초 '도서관농장터'에서 무료 배포 합니다.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창립 40주년기념 행사

- 1. 탁본전시회 : 가. 일시 : 2008. 11. 17(월) ~ 21(금) 10:00~20:00 나. 장소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시실 다. 동문참여 행사 : 월-목, 18:00~20:00, 체험타본 및 탁본소품제작 라. 대상 : 학과 재학생 및 동문, 교수 초초작품 마. 주제 세미나 : 2008. 11. 12(수) 18:00 학림관 212호 바. 후원: 역사교육과 총동문회 사. 탁본 전시 작품 : 재학생 18점, 동문전조 8점 등 총 27점. 아. 체험 탁본 : 역사 교육과 40주년과 탁본 전시회의 30주년을 맞아 체험 탁본을 하시며 옛 추억을 살리며, 탁본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탁본을 하는가를 알려드립니다.
2. 역교인 선후배 한마당 : 가. 목적: 역사교육과 설립 40주년을 즈음하여 학과 위상 정립 및 제고함.
나. 목표: 학과발전과 진로탐색, 다. 일시: 2008.11.21(금) 15:00~18:00 ('동문의 밤' 행사와 연계) 라. 장소: 동국대학교 학술관 덕담세미나실, 문화관 K204, K305 마. 대상: 초빙 동문, 학과교수 및 재학생 바. 내용: 동문과 선후배의 간담회
3. 역사교육인의 밤(동문의 밤) : 가. 일시 : 2008년 11월 21일(금) 19:00 나. 장소 : 동국대학교 교내 상록원 3층 다. 프로그램 1부 - 기념행사 2부 - 만찬 및 공연
4. 창립40주년 학과발전 기금 모금 사업 : 1) 기간 : 2008년 8월~ 2009년 2월 2) 계좌 번호 국민은행 277202-04-016812 (예금주: 조근) 농협 032-02-220943 (예금주: 조근)

2009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 1. 지원자격 : ○ 연 령 : 입원일 기준 만 20~27세인자 ○ 학 령 : 4년제 대학 2학년으로 3학년 진학가능자 (5년제학과 3학년으로 4학년 진학가능자)
2. 선발방법 : ○ 1차선발 : 필기고사 + 대학성적으로 정원의 200% 선발 ○ 2차선발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신체검사 실시, 종합성적순으로 정원의 130% 선발 ○ 최종선발 : 신원조회 합격자 중 종합성적 순으로 최종선발 \* 종합성적 = 필기고사 + 대학성적 + 체력검정 + 면접평가
3. 모집시기 : 연 1회(3월)
4. 지원접수 : 인터넷 접수 : www.armyofficer.mil.kr
5.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전화, 02 - 2260 - 8537) 학군교(전화, 02 - 3403 - 7121~4)

# ‘나눔’의 행복 ‘기부’에서 시작된다

## 동국 명예의 전당에 기부자 예우 조형물 설치 ... 출신 단과대에도 확대 설치 예정



우리대학은 지난 24일 본관 3층 입구에 위치한 명예의 전당을 개관했다. 기부자들에 대한 특별 예우 마련의 취지에서 도입된 이번 명예의 전당은 거액 기부자들의 조형물 설치로, 기부자들에게 동국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높여 주고 있다. 또한 우리대학의 역사와 앞으로의 비전 및 발전계획까지 보여주는 공간으로 활용돼 동문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이번 명예의 전당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던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의 성격이 구체적 공간으로 발현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다른 대학의 경우 '기부자 예우'와 '학교의 역사를 담

아내는 공간'이 분리된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우리대학은 두 가지를 접목시켜 본관 입구에 공간을 조성해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대외협력단의 변승재 직원은 "현재 명예의 전당에 설치된 거액 기부자들의 조형물은 기존의 동판 부조와 같은 딱딱한 느낌에서 벗어나 남녀노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고 말했다.

대외협력단(단장=이선인)은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과거와는 달리, 명예의 전당 개관을 시점으로 다양한 예우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꾀하고 있다. 기부금 규모에 따른 회원제를 도입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기부금의 누계 금액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은 석실, 3천만 원 이상은 신실, 5천만 원 이상은 자애, 1억 원 이상은 도세 회원으로 명명해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백만 원 이상의 일시불 기부자에 대한 감사 전화, 생일 축하카드 및 기부 기념일 카드를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명예의 전당과 같은 기부자 예우 조형물은 기부자의 출신 단과대 건물에도 설치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단과대학 건물과 학내 신축되는 건물에도 기념 조형물의 설치가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김활란 기자

1	2
3	4

1. 본관 입구에 위치한 명예의 전당 전체 모습
  2. 기부자 예우 조형물이 새겨진 유리 벽면
  3. 기부자 예우 조형물인 명판의 모습
  4. 기부자 예우 조형물과 학교의 연혁을 함께 새긴 유리 벽면
- 사진=이정훈 객원기자

### 10년간 30억 기부한 한의학과 동문회

## 티끌모아 태산 만들어낸 기부문화의 모범

### 기부금에 담아낸 후배위한 내리 사랑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은 다 줄거야. 더 줄 게 없어서 미안하지" 육탑방에 살면서 전 재산인 전세금 1,500만 원과 정부 지원금으로 받은 500만 원을 모아 기부한 80대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어느 인간이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가장 값진 보상을 기다리기 마련이다. 과연 인간에게 주어지는 보상 중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으로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세계적으로 '부'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누구 부럽지 않다는 빌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꼽은 최고의 보상은 바로 '기부'였다.

최근 우리대학에도 조용한 기부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앞장 서 후배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고 있는 한의학과 동문회 남상민(한의85졸) 동문회장을 만났다. 한의학과 동문회는 지금까지 우리대학에 실제 기부한 금액과 기부 약정금액까지 모두 합쳐 약 30억 원 정도를 내놓았다. 기부는 일산캠퍼스의 '한의학관 건립'을 위해 써달라며 동문들의 마음이 한데 모아졌기에 가능했다.

"내가 한의학과 1회 졸업생인데 한의학과도 없었을뿐더러 실습실도 부족해 어려운 면이 많았어"

라며 "지금은 21세기인데 후배들에게 보다 나은 면학 풍토를 제공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기부의 취지를 밝혔다. 아마 21세기가 아닌 19세기의 후배들이었다 해도 더 좋은 곳에서, 좋은 것만을 보며 공부하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선배의 대답은 똑같았을 것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동문회가 있는 한 30억은 끝이 아닌 시작과도 같다"고 말하는 남상민 회장. 이런 든든한 선배들의 효과 만점 침술은 지금의 후배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우리대학에 지속적인 기부를 하며 인연을 맺어 온 한의학과 동문회. 보다 많은 기부자들의 확충에 대해 "제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스스로 기부하고픈 마음이 들도록 하는 학교 측의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들로 가득한 요즘, 쉽사리 기부금을 내놓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좋지 않은 경제 형편에도 불구하고 기부하려는 의사가 끊이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학교 측의 부단한 노력과 기부자들의 애교심이 최적점에서 만나 이뤄낸 합작품일 것이다.

이번 한의학관의 건립은 한의학과 학생들을 위한 취지이기도 하지만 우리대학의 고질적 문제인 공간 부족에 대한 작은 해결책이기도 하다. "우리의 기부금은 한의학관 건립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지만, 한의학과 역시 동국대의 일부분이다. 한의학과와 다른 학과에서도 필요하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학교에서 어느 명절엔가 사과 한 박스를 보내 온 적이 있는데, 대단한 것은 아니라도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는 세심함에 놀라웠다"고 말하는 남상민 동문. 얼마나 기부를 했으면 학교에서 사과를 다 보내오느냐며 아내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다고 웃어 보인다. "피리도 피리를 무는 것이 기부라고, 한 사람이 기부를 하고 그 기부가 다시 또 다른 기부로 이어지는 것이야말로 기부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한다. 비록 작은 사과 한 박스였지만, 남 동문이 받은 것은 빨간 사과와 색다른이나 진한 감사의 표시였다.

마지막으로 동문들의 학교에 대한 애교심에 대해 물어보자 "재학생들은 졸업하면 학교에 아무래도 소홀해지기 마련이야, 학생들이 애교심을 갖을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학교 측의 숙제지"라고 답했다. 더불어 "한창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한의학과 발전기금을 내 준 동문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더했다.

살이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상은 다른 이를 성심껏 도울 때 따뜻해지는 자신의 삶에 있다. 주먹을 쥔 손 보다는 편 손이 아름답다는 말처럼 편 손의 아름다움을 실천할 줄 아는 남상민 동문.



남상민(한의학과 85년 졸업) 동문

김활란 기자  
lan@dongguk.edu

## 2008 Come Together

### 동문네트워크 강화 기대

2008 Come Together 행사가 오는 1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신라호텔 다이내스티 홀에서 개최된다. 'Come Together' 행사는 모교 발전을 위해 뜻을 모은 각계각층의 우리 동창들이 모이는 자리로, 2007년 오영교 총장 취임 이후 처음 시작되며 학내 행사 중에서도 중요한 행사로 꼽히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2008년 주요 기부자 소개 및 주식회사 휴림 바이오셀과의 MOA 체결 공표식, 한의학과 총 동문회의 거액 약정 발표가 예정되었다. 이밖에 대법과대 사법시험 합격자 및 재학생들이 법과대학의 발전기금으로 12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우리대학은 주식회사 휴림 바이오셀과의 MOA의 체결로 고양시에 조성될 메디클러스터 내 즐기세포 연구시설에 160억 원 상당의 지원을 받아 학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0억 원에는 학교 발전기금으로 30억 원이 포함돼 있다.

지난 5월 20억 원을 기부했던 이방주 이해광 연극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2억 9천만 원), 최진식 SIMPAC 회장(5억 원), 민병천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1억 원), 김학동 대영홍산 대표(2억 원) 등이 2008년 기부자로 소개되며, 이와 함께 최근 만들어진 '동국 명예의 전당'에 대한 소개가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Come Together' 행사를 통해 발표되는 기부금액은 올 한해 우리대학의 발전기금 목표액인 100억 원에 가까운 95억 원 정도로 추정돼 목표 달성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 2008 동국발전기금 모금현황

## 올해 발전기금 모금 첫 100억 돌파 '관심' 모아

### 현재 64억 넘어 ... 약정액 추정치로 가능 판단

올해 대학발전기금 모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협력단(단장=이선인)에 따르면 11월 10일 현재 발전기금 모금액은 모두 64억 8천만 원. 오는 13일 열리는 2008 Come Together 행사에서 상당액의 발전기금 모금이 예상되고 있어 연말까지 모금목표액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2003년 36억 원, 2004년 24억 원, 2005년 38억 원에 그쳤던 것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특히 개교 100주년 행사와 대대적인 모금사업을 벌였던 2006년의 모금액이 59억 원, 지난해 모금액이 54억 원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발전기금 모금이 이제 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동국발전기금'은 우수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기금, 대학에 기부금 사용을 일임한 발전기금, 기부자가 지정한 분야에 후원하는 특정목적기금, 기부자가 원하는 단위(학과, 연구소 등에 기부하는 단위기금, 부동산·기자재·미술품 등을 기부하는 수증물품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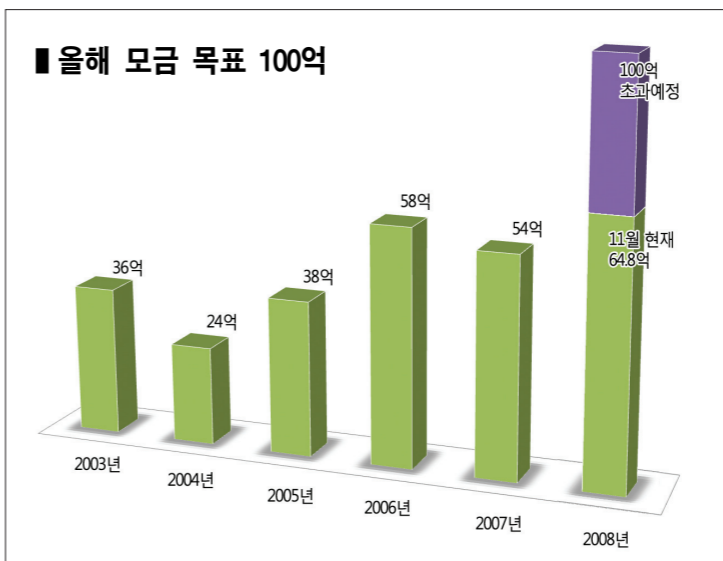
올해 발전기금 주요 기부 사례로는 지난 학기 이해광 연극재단이 예술극장(현 이해광 예술극장) 구조 변경 및 이혜랑 선생의 연극 관련 전시 공간을 마련해달라며 20억 원을 기부했다. 또한 중국청이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홍무장학금'을 전달했다. 그리고 대영홍산의 김학동 사장이 2억 원을 기부했고, 신성약품 김진문 회장이 1억 원을 기부했다.

대외협력단 백승규 과장은 "현재 기부금의 7~80%가 동문기부"라며 "동문들을 세대별, 직업

별로 나눠 모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부를 유지·증가시키는 것이 동문기부 활성화의 필수과제"라고 말했다.

대외협력단은 고액기부 뿐만 아니라, 학과 동문회 단위의 소액 기부 운동을 활성화 시키는 한편 다양한 기부프로그램으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올해 기부금 중 43억 원이 1억 원 이상의 고액 기부인 것으로 나타나 소액 기부운동의 활성화는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과 다양한 동문예우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금 모금의 기반을 확보



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성큼 다가온 기부금 100억대 돌파를 계기로 대학 내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용재 기자  
wonder@dongguk.edu



2007 Come Together 행사 모습.